

“동물학대죄 현실화” “인증제도 도입해야”

(설채현)

(이웅중)

설 “동물보호법 집행 잘 안돼”
이 “공약 이행 무엇보다 중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반려동물 업계가 이번 국회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실질적 보호와 함께 반려인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강조했다. 반려동물 등록을 엄격히 하고,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는 목소리와 함께 보육세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놓은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반려동물 전문가인 설채현 수의사와 이웅중 반려동물 트레이너의 말을 들어보자.

EBS 반려동물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설채현 서울청담 씨티칼리지 디렉터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동물보호법이 있고, 동물 학대가 일어날 경우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보다는 엄격하게 집행해서 현실에 잘 적용시켜주기를 주문했다.

설 디렉터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재물손괴죄



다양한 반려동물 공약을 내뿜던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설채현 서울청담씨티칼리지 디렉터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조개통령’ 이웅중 연암대 교수도 “내놓은 공약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진제공 | 펫뉴스

보다 동물 학대 행량이 낮거나 비슷하게 정해져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는 “반려동물 유기나 등록 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제도화돼있긴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

며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설 디렉터는 국회에서 반려동물 보육세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보육세에 대한 논의가 얼마

전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가 반려동물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원조개통령’ 이웅중 연암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면 펫마켓을 지키는 데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센터가 개설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센터에 개를 못 데려오고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을 (교육) 하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각 의원들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했으면 좋겠다. 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도움이 되는 정책 공약의 실천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지난해 유기동물 13만5000마리 12% 증가
지자체, 입양비 지원·무료 교육 등 팔 걸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의 크기와는 별개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은 부족한 형편이다.

반려동물 업계에서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외쳐도 여전히 구입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인 4명 중 1명(23.2%)은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샀다고 답했다. 그에 반해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9%)에 불과했다.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이 있거나 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답변(43.1%)이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아서 피한다(16.9%)는 답변이 뒤를 따랐다.

손쉽게 펫샵에서 산 동물은 손쉽게 버려지기도 한다.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은 13만5000여 마리였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 동물, 주로 반려견을 섬에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도 허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자체들은 반려동물 유기를 막고 책임감 있는 입양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유기견 입양 시 상담과 교육을 하고 비용까지 지원한다. 입양자에게 한 마리당 입양비를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 무료로 건강검진과 동물등록을 해주고 4개월 이상의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도 해준다. 서울 강동구는 유기견 입양 후 전문 훈련사들이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입양 후 교육’을 별도의 비용없이 제공한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아몬스, ‘99% 분해’ 종이 배변패드 출시



반려동물의 행복을 설계하는 기업 아몬스(대표이사 김정곤)가 종이로 만든 반려견 배변패드(사진)를 출시한다. 썩지 않는 비닐 방식지 대신 자연분해가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여 99%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무향, 무형광증백제, 무포름알데히드 등으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 패드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논슬립(non-slip) 기술을 적용했다. 온라인에서 300매 이상 구매할 고객 중 반려견이 발톱으로 패드를 긁거나 이빨로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경우 신장자에게 아몬스 망사형 소형 토일렛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성동구, ‘반려동물 교육법’ 영상 공모전

서울 성동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6월 한 달간 진행하며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제는 반려동물 교육방법, 반려인들의 배려 영상 등 반려동물 관련이 된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응모 방법은 위의 주제로 만든 3분 이내 영상을 본인 계정의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와 서약서, 영상 원본 파일을 이메일(pet1234@sd.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7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금상에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수진 기자

편백나무 ‘흔들의자’ 반려견 마음 흔드네

금화상사 ‘나나펫헬스’ 눈길



반려견 시추 나나는 엄마, 아빠를 잘 따르고 영리하여 예쁨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나는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청천벽력의 시한부 심장병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지극정성으로 나나를 돌보았지만, 건강이 나날이 악화됐다.

악화된 건강으로 반려견 미용실에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미용과 목욕을 집에서 직접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나나가 편하게 미용과 목욕을 할 수 있을까?’, ‘악해져 가는 나나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거듭하던 나나 아빠 이연우 금화상사CEO는 목욕과 미용 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 흔들의자를 만들었다. 심장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나를 보고 편백나무를 소재로 삼았다.

편백나무에서 은은히 나오는 피톤치드는 천연항균물질이며, 편백향인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나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커팅과 샌딩 등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해 강아지 의자의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흔들의자, 나나펫헬스는 나나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나나는 아픈 중에도 나나펫헬스 위에 올라가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나나펫헬스는 프리사이즈로 본체와 높이 조절대, 엉덩이 받침대, 안전벨트로 이뤄져 있다. 반려동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나나펫헬스를 놓아두면 반려동물이 올라가 자연스럽게 논다. 반려동물이 노는 동안 제 몸을 만지고 가끔씩 흔들려주기도 하면서 적을 시키면 된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펫테리어’가 최근 급부상 중이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LG하우시스의 바닥재 ‘지아사랑’, 일룸의 펫가구 시리즈 ‘캐스터네츠’, 한솔홈데코의 SB마루 신제품, 반려동물 제품인증 받은 삼화페인트 제품이 적용된 반려동물 전용 빌라 연세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LG하우시스·일룸·한솔홈데코·삼화페인트

반려동물이 살기좋은 우리집... ‘펫테리어’ 바뀌볼까

(펫+인테리어)

LG하우시스 ‘안티슬립’ 바닥재 주목
일룸 펫가구 ‘캐스터네츠’도 큰 인기

지난달 31일 방영된 SBS FIL ‘홈데칼라’가 반려동물과의 거주를 위한 리모델링 요청에 ‘펫테리어(pet+interior·펫과 인테리어의 합성어)’를 선보여 반려인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다.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펫테리어’로 모이고 있다. 이에 건축·인테리어 업계는 반려동물을 염두에 둔 제품들을 앞 다퉈 출시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표면에 미끄러움을 줄여

주는 ‘안티슬립(anti-slip)’ 기능이 적용된 바닥재로 반려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인(Z:IN) 바닥재는 ‘지아소리잡’, ‘지아사랑애’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제품들은 질감이 도드라져 반려견이 덜 미끄러지도록 해 슬개골 탈구 예방이 가능하다. 지아소리잡 등 프리미엄 바닥재는 고탄성 쿠션층이 있어 반려동물의 관절을 보호해 준다.

발수성이 뛰어나 반려동물의 대소변에 의한 마루 변형이 없는 한솔홈데코의 SB마루는 디자인과 규격을 다양화시켜 신제품을 출시했다. 기존 SB일만 마루에 비해 내구성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춰 반려동물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반려견이 짓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 주는 중문 제품인 ‘원 슬라이딩 도어’도

내놨다. 삼화페인트는 페인트업계 최초로 건축용 페인트 24개 제품에 대해 ‘반려동물 제품인증’을 취득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에 주목해 관련 연구를 지속해 온 삼화페인트는 반려동물 시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펫러브 컬러팔레트’를 선보였다. 반려동물 박람회인 케이펫페어에 도료업계 최초로 참가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해왔다.

생활 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은 고양이와 집사가 함께 쓰는 펫가구인 ‘캐스터네츠’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체 연구소와의 협업은 물론 고양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매주와 고양이들’과 나눈 의견을 제품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